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에 관한 연구[제 I 보] - 2001~2005년도 여자한복을 중심으로 -

김순구 · 이영애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A Study on Decoration Techniques Applied to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of Contemporary Style[Part I] - Focusing o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for Women which were Delivered between 2001 and 2005 -

Soon-Ku Kim and Young-Ae Lee

Dept. Design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coration techniques applied to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of modern style which are shown in special monthly magazines relevant to the traditional magazin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types of decoration techniques applied to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re largely classified into single and composite types. In the traditional costume of the former type, a quite many of gold and silver foils and embroideries are found. While, in that of the latter type, a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decorations, embroideries and seonchigi or multi-colored stripes and seonchigi is often used. These decoration techniques are usually applied to some parts of the costume like git, kkeutdong or cuffs, somae or sleeves, seop, goreum or coat strings, jacket or jeogori, the lower hem of the skirt and between joined parts in the skirt. Used together with the techniques, patterns are usually applied onto embroideries and gold or silver foils. Most of the patterns are flower in shape. The main material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is fabrics that have no pattern on the surface and are commercially available irrespective of season. Git used for jeogori is largely classified into dangko git and donggrae git in type. Its color is in most cases same as the main color of jeogori. Keutdong for jeogori is usually 4 to 5.5 cm in breadth, classified as type II. Its color is in most cases white. Goreum for jeogori is usually large in length. Its color is most cases same as that of jeogori or reddish purple or blackish red purple.

Key words: Contemporary Style, Korean traditional costume, decoration technique, classification of types, formative characteristics

1. 서 론

전통이란 민족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정신적 이념이나 가치관, 정서 혹은 관습, 믿음, 행위의 집합체로 이것의 근본적인 결속체가 문화이며, 이 중 복식은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 개인, 민족, 시대에 따라 특유한 미적 특성을 표출하는 가시적 조형물로서 당대의 미적 가치 내지는 생활양식과 소통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한복은 우리민족의 민속의상으로, 기모노와 치파오 등 다른 동양 복식에 비해 표현의 자유와 구성형식, 착장방법의 변화로 다양한 실루엣과 한국적인 곡선미를 표현할 수 있고(이영혜, 2007), 백영자(2007)는 서양복식구성의 합리성은 입체적인데 반

하여 전통복식 구성의 합리성은 평면적이며, 또한 사이즈의 융통성, 직선재단의 장점으로 겹쳐 입을 수 있어, 형태의 다양성과 더불어 색채 겹침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옷은 여러 가지의 장점과 함께 여기에 다양한 장식적인 기법을 가미하여, 평면적인 구성에 입체적인 효과를 주어 우리옷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식기법에는 금·은박, 자수, 색동, 조각잇기, 애플리케, 선치기, 스티치, 누비, 그림그리기, 잣물림, 매듭, 핀턱, 수모, 염색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장식기법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혼합기법 등이 있다. 특히 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들은 기법 하나하나가 단독으로 사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문양과 색상이 배합되어 나타나는 화려한 기법들은 단독으로 쓰였으나, 문양이 없고 비교적 장식이 단순한 기법들은 화려한 장식기법들이 더해짐으로써 한복에 있어 화려함을 극대화할 수

Corresponding author; Soon-Ku Kim
Tel. +82-51-320-1855, Fax. +82-51-628-8171
E-mail: skkim9912@hanmail.net

Table 1. 한복 전문잡지에서 발췌한 전통한복의 자료 내역

분 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장식기법이 있는 경우	122	55	61	52	43	333(76)
장식기법이 없는 경우	18	23	34	12	18	105(24)
소 계	140(32)	78(17.8)	95(21.7)	64(14.6)	61(13.9)	438(100)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통한복에 조형미를 가미하거나 유행을 바꾸어가는 요소로써 장식기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전통한복의 이름 다음과 유행 변화의 중요한 요소인 장식기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지금까지 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하덕순(1993)은 80년대~1992년까지, 정혜경, 박영희(2004)는 1995년~2002년까지 등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한복에 장식된 문양의 종류와 기법 등을 연구하였고, 이영애(2002)는 장식기법 중 애플리케를 응용한 한복문양을 디자인하여 실제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현숙(2006)은 1986~1997년까지의 한복에 나타난 장식성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정혜경(2006)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한 전통의상에 사용된 장식문양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한복에 사용된 문양에 관한 연구와 장식기법은 9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2000년대 이후의 장식기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2009년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2001년~2005년과 2006년~2009년도의 장식기법의 특성이 2005년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한(韓) 브랜드화’와 TV드라마·영화의 영향으로 인해 특성의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먼저 2001~2005년의 전통한복에 사용되고 있는 장식기법을 한복 전문 월간잡지를 중심으로 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복 시장의 활성화와 현대 의상디자인에 활용, 현대 전통한복의 유행을 예측하는 연구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한복 전문 월간잡지 ‘한복’(2001~2005년)과 ‘자연염색과 우리옷’(2005년)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잡지들은 매월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복업계의 불황으로 격월 또는 계절별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 자료는 한복 잡지에 수록된 전통한복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월간잡지 한복의 자료는 2001년 1월호인 No. 3호를 시작으로 하여 2005년도의 10월호(마지막 호)인 Vol. 38 까지 36권과 2005년도 7월호가 창간호인 자연염색과 우리옷의 자료인 130-1에서 3호(11월호) 까지 3권을 합하여 총 39권의 한복 전문잡지에 수록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내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의하면 잡지에서 수집된 자료의 수는 총 438점으로, 그 중 장식기법이 있는 경우는 333점으로 76%이고, 장식기법이 없는 경우는 105점으로 24%를 나타내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자료분석

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을 장식기법이 나타나는 전통한복 자료 333점을 선별하여 장식기법의 종류에 따른 유형분류와 유형의 특성을 사용부위, 문양을 분석하고, 총 438점을 대상으로 소재의 특성, 저고리의 깃모양과 색상, 끝동의 너비와 색상, 고름의 길이와 색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월간지 화보의 전통적인 저고리 치마

Table 2. 한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의 종류

연구자	분류	장식기법의 종류
하덕순(1993)		염색(침염, 날염, 공예염, 교염, 판염, 호염), 자수(손수, 기계수, 컴퓨터 자수), 금박, 애플리케, 혼합기법(염색과 자수, 염색과 애플리케, 애플리케와 자수)
이영애(2002)		염색(침염, 날염, 공예염, 교염, 판염, 호염), 자수(손수, 기계수, 컴퓨터 자수), 금박, 애플리케, 혼합기법(염색과 자수, 염색과 애플리케, 애플리케와 자수)
정혜경·박영희(2004)		자수, 금박과 은박, 조각보, 애플리케, 잣물림, 상침질, 파이핑, 그림찍기, 나염, 그림그리기, 핀터, 콜라주
정혜경(2006)	전통적인 장식기법	자수, 금·은박, 색동 및 조각보, 그림 찍기, 그림그리기
	현대적인 장식기법	구슬, 스팅글, 플라운스, 리플, 브레이드, 파이핑, 콜라주
이현숙(2006)	바느질기법	바이어스 선끼우기, 색동, 조각잇기, 잣물림, 자수, 애플리케
	박(箔)장식	금박, 은박
	염색	날염, 침염, 방염(백색방염, 착색방법, 특수기법), 발염

한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의 종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하덕순(1993)과 이영애(2002)는 염색, 자수, 금박, 아플리케, 혼합기법으로 분류하였고, 정혜경, 박영희(2004)는 자수, 금박과 은박, 조각보, 아플리케, 잣물림, 상침질, 파이핑, 그림짜기, 나염, 그림그리기, 핀터, 끌라쥬 등으로 분류하였고, 정혜경(2006)은 이를 다시 전통적인 장식기법과 현대적인 장식기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현숙(2006)은 바느질기법, 박장식, 염색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3. 결과 및 분석

장식기법의 유형은 장식기법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고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출현율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장식기법의 유형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되고, 복합형은 다시 두 가지의 장식기법이 조합된 복합형Ⅰ과 세 가지의 장식기법이 조합된 복합형Ⅲ, 네 가지의 장

단독형의 경우 총 180점 중 금·은박(Fig. 1, 2)과 자수(Fig. 3)가 각각 55점과 54점으로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이 외에 누비, 스티치, 아플리케, 잣물림, 매듭, 핀트, 수모 등이 단독형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또한 단독형에 사용된 장식기법 중에서 수모만 제외한 모든 장식기법들이 복합형에도 사용되었다.

Fig. 1~Fig. 3은 모두 단독형으로 사용된 장식기법이다. Fig. 1은 고름과 끝동에 수복(壽福)문과 국화문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고, Fig. 2는 깃과 고름, 결마기에 수복문과 국화문, 끝동에는 수복화문이 은박으로 장식되어 있다. Fig. 3은 깃과 끝동에 꽃과 나비를 화려하게 수를 놓아 장식하였다.

복합형의 경우 총 153점 중 복합형이 97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나타나고, 복합형II가 43점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그 외에 복합형III와 복합형IV는 복합형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복합형I의 경우 자수와 선치기가 조합되거나, 색동과 선치기가 조합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Fig. 4, 5). Fig. 4는 화려한 꽃수가 깃과 끝동에, 깃선쉴선끝동선수구에는 홍색의 선치기로 장식되어 있다. Fig. 5는 색동은 소매에, 선치기는 깃과 쉴선에 바탕색보다 짙은 색으로 장식되어 있다.

복합형II의 경우 자수와 조각잇기와 선치기가 조합되거나, 색동과 선치기와 잣물림이 조합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Fig. 6, 7). Fig. 6은 조각잇기로 장식한 저고리 길 위에 꽃을 수놓고, 깃선 쉼선수구에는 선치기로 장식되어 있다. Fig. 7은 색동을 진동부 위에, 선치기는 깃선·쉼선·진동선·수구에, 잣물림은 깃선에 배치하여 장식하였다.

복합형Ⅲ의 경우 자수와 색동과 선치기와 잣물림이 조합된

분류	구성요소	년도별 N					총 N(출현율: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단독형	금은박	26	7	9	8	5	55
	자수	15	8	8	18	5	54
	색동	4	5	2	2	5	18
	조각잇기	8	3			3	14
	아플리케					2	2
	선치기	4	3		2		9
	스티치	1	1	1			3
	누비	1	1	1		1	4
	그림그리기	4		7		3	14
	기타(갓물림, 매듭, 편턱, 수모 등)	1	1	3	1	1	7

Table 3.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계속)

분류	구성요소	년도별 N					총 N (출현율: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복합형I	금은박+자수		1	1	2	1	5
	금은박+색동		1				1
	금은박+선치기	3		4			7
	금은박+매듭		1				1
	자수+색동	1	2			1	4
	자수+조각잇기	1			2		3
	자수+아플리케					1	1
	자수+선치기	21	1	8	2		32
	자수+스티치	1		2			3
	색동+조각잇기			1			1
	색동+선치기	4	3	4	1		12
	색동+스티치					3	3
	색동+그림그리기		1				1
	색동+잣물림	2					2
	색동+핀턱					1	1
	조각잇기+선치기	2		2			4
	조각잇기+스티치		1				1
	아플리케+스티치					2	2
	선치기+누비	1	1				2
	선치기+스티치	1					1
	선치기+그림그리기				1		1
	선치기+잣물림	3	2				5
	선치기+꽃장식	1					1
복합형II	그림그리기+핀턱				1		1
	핀턱+매듭		1			1	2
	금은박+자수+색동	3					3
	금은박+자수+선치기			3			3
	금은박+색동+선치기	1		1			2
	금은박+선치기+매듭		1				1
	자수+색동+선치기	2		2			4
	자수+색동+스티치				4		4
	자수+색동+누비					1	1
	자수+조각잇기+선치기	1	2	1		1	5
	자수+조각잇기+스티치				1		1
	자수+아플리케+선치기		1				1
	자수+선치기+스티치	1					1
	자수+선치기+누비			1			1
	자수+선치기+잣물림	2				1	3
	자수+선치기+핀턱		1				1
	색동+선치기+잣물림	2			1	1	4
	색동+선치기+핀턱					1	1
	색동+선치기+매듭장식	1					1
	색동+스티치+핀턱					1	1
	조각잇기+선치기+매듭	2					2
	선치기+스티치+그림그리기				1		1
	선치기+그림그리기+핀턱				1		1
	선치기+매듭+핀턱		1				1

Table 3.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계속)

복합형	복합형Ⅲ	자수+색동+선치기+스티치			1	1	11(3.3)	153(46)	
		자수+색동+선치기+갓물림	1	2		3			
		자수+색동+스티치+핀터			1	1			
		자수+조각잇기+선치기+매듭		1		1			
		자수+선치기+스티치+핀터			1	1			
		색동+조각잇기+선치기+갓물림		1		1			
		색동+선치기+스티치+갓물림				1			1
		색동+선치기+매듭+핀터	1	1		2			
	복합형Ⅳ	자수+색동+조각잇기+선치기+갓물림				1	1	2(0.6)	
		자수+조각잇기+선치기+스티치+핀터			1		1		
소 계		122(36.7)	55(16.5)	61(18.3)	52(15.6)	43(12.9)	333(100)

Fig. 1. 단독형: 금박(한복 No.6, 2001, p.49)

Fig. 2. 단독형: 은박(한복 No.19, 2003)

Fig. 3. 단독형: 자수(한복 Vol.38, 2005, p.33)

Fig. 4. 복합형 I: 자수+선치기
(한복 No.8, 2001, p.43)

Fig. 5. 복합형 I: 색동+선치기
(한복 No.8, 2001, p.39)

Fig. 6. 복합형 II: 자수+조각잇기+선치기
(한복 No.6, 2001, p.73)

Fig. 7. 복합형II: 색동+선치기+
갓물림(한복 No.28, 2004)

Fig. 8. 복합형III: 자수+색동+선치기+
갓물림(한복 No.11, 2002, p.61)

Fig. 9. 복합형IV: 자수+색동+조각잇기+
선치기+갓물림(한복 Vol.38, 2005, p.41)

것이 주류를 이룬다(Fig. 8). Fig. 8은 치마말기에 꽃을 수놓고, 소매에는 색동을 규칙적으로 이어붙였으며, 깃선과 진동선에는 선치기로, 잣물림을 깃선에 배치하여 장식하였다.

복합형Ⅳ의 경우 자수와 색동과 조각잇기와 선치기와 잣물림이 조합되어 나타났다(Fig. 9). Fig. 9는 조각잇기는 1/2소매 쪽(소매 끝에 따로 잇는 끝동 외에 소매 수구쪽을 중심으로 소매의 약 1/2아래쪽에 들어가는 장식이나 문양을 지칭함)에, 섹과 조각잇기에 이은 1/2소매쪽에 꽃을 수놓고, 진동부위와 끝동에는 색동을 규칙적으로 이어붙였으며, 깃선에는 선치기와 잣물림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상에서 금·은박, 자수, 색동, 조각잇기 등의 기법은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많이 사용되어 나타나고, 선치기와 스티치, 잣물림, 매듭, 핀터 등의 기법은 단독으로 쓰여 지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복합형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양과 색상이 배합되어 나타나는 화려한 기법들은 단독형으로 쓰였으나, 문양이 없고 비교적 장식이 단순한 기법들은 화려한 장식기법들이 더해짐으로써 한복에 있어 전체적으로 화려함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3.2. 장식기법의 특성

3.2.1. 사용부위에 따른 특성

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을 사용부위별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통해 장식기법의 유형을 사용부위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1,123점 중 자수가 289점(25.7%), 금은박이 253점(22.5%), 선치기가 249점(22.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

고, 색동이 103점(9.2%), 조각잇기가 56점(5.0%), 스티치가 39점(3.5%), 그림그리기가 32점(2.8%), 잣물림이 29점(2.6%), 핀터이 24점(2.1%), 매듭이 16점(1.4%)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며, 애플리케, 누비, 수모, 한글시, 꽃장식, 염색 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자수, 금은박, 선치기 등의 기법이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많이 사용되어 나타나고, 색동, 조각잇기, 스티치, 잣물림 등의 기법은 단독으로 쓰여 지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복합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금은박은 깃과 고름, 끝동, 결마기 등 주로 저고리에 사용되었고, 자수는 깃과 끝동, 소매 등 주로 저고리와 치마에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으며, 선치기는 깃선, 섹선, 수구 끝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특이하게 진동둘레선과 치마폭 사이사이에도 사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색동은 주로 소매 전체 또는 소매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끝동, 깃에도 사용되었다. 조각잇기는 끝동과 깃에, 그림그리기와 애플리케, 매듭은 주로 치마에, 스티치와 잣물림, 핀터, 수모는 주로 깃선에, 누비는 저고리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장식기법이 주로 사용된 부위는 깃과 끝동, 소매, 섹, 고름, 저고리 등과 치마의 밑단이나 폭 사이사이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동정, 소매 배래, 화장 부위, 치마말기 등에도 장식한 점이 특징적이다.

3.2.2. 문양의 특성

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을 문양의 종류별로 정리하

Table 4. 사용부위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유형	사용부위(N)	N(출현율: %)
금·은박	깃(63), 고름(60), 끝동(44), 결마기(28), 저고리(25), 치마(11), 섹(11), 소매(9), 화장(2)	253(22.5)
자수	깃(69), 끝동(52), 소매(49), 저고리(43), 치마(29), 섹(17), 치마말기(13), 고름(11), 동정(4), 결마기(2)	289(25.7)
색동	소매(48), 끝동(23), 깃(20), 치마(4), 고름(4), 섹(3), 어깨(1)	103(9.2)
조각잇기	끝동(14), 깃(12), 저고리길(11), 소매(11), 고름(3), 치마(3), 결마기(1), 섹(1)	56(5.0)
애플리케	치마(6), 저고리(3), 끝동(1)	10(0.9)
선치기	깃선(113), 섹선(63), 수구끝(42), 진동선(12), 치마폭(10), 소매(5), 끝동선(3), 도련선(1)	249(22.2)
스티치	깃선(12), 끝동선(10), 소매(8), 치마(4), 저고리(3), 도련(1), 섹(1)	39(3.5)
누비	저고리(7), 깃(1), 끝동(1)	9(0.8)
그림그리기	치마(14), 저고리(4), 고름(4), 깃(3), 섹(3), 끝동(2), 소매(2)	32(2.8)
잣물림	깃선(17), 치마폭(5), 끝동선(3), 소매(2), 고름(1), 섹선(1)	29(2.6)
매듭	치마폭(7), 깃(3), 소매(3), 끝동(2), 저고리(1)	16(1.4)
핀터	깃(5), 끝동(5), 소매(5), 저고리(4), 치마(3), 섹(1), 수구(1)	24(2.1)
수모	깃(2), 섹선(2), 도련(2), 수구(2)	8(0.7)
한글시	치마(3)	3(0.3)
염색	치마(1)	1(0.1)
꽃장식	화장선(1), 치마폭(1)	2(0.2)
소 계		1,123(100)

Table 5. 문양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유형	문양의 종류(N)	N(출현율: %)
금·은박	수복문+화문(27), 화문(14), 수복문(13), 길상어문(8), 수복문+당의금박문(3), 기하문(2), 석류문(2), 당초문+운문(2), 당초문(1), 보상당초문(1), 복숭아문(1), 박쥐문(1), 화염문(1), 화문+운문(1), 운용문+아자문(1)	78(32.2)
자수	화문(101), 화점문(18), 포도문(4), 화문+기하문(4), 십장생문(3), 박쥐문(2), 기하문(2), 길상어문(1), 단청문(1), 포도당초문(1), 화문+운문(1), 석류문+기하문(1)	139(57.4)
아플리케	화문(5)	5(2.1)
그림그리기	화문(9), 풍경화(4), 풍속화(1), 화점문(1), 매화(1), 소나무(1), 기하문(1), 비천문(1), 연화문+평과물고기(1)	20(8.3)
소 계		242(100)

면 Table 5와 같다.

총 333점 중 장식기법의 특성상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색동, 조각잇기, 선치기, 스티치, 누비, 기타 등과 이들 기법만으로 조합된 복합형 등의 104점은 제외하였다.

Table 5를 통해 장식기법에 사용된 문양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42점 중 자수가 139점(57.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금은박이 78점(32.2%)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그림그리기가 20점(8.3%)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며, 아플리케가 5점(2.1%)으로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금·은박은 수복문과 화문이 주로 조합되어 가장 많이 나타나며(Fig. 1, 2 참조), 그 외에 화문, 수복문, 길상어문 등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어 나타났고, 자수는 화문(Fig. 3, 4 참조)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며, 그 외에 화점문이 사용되어 나타났다. 아플리케와 그림그리기에서도 역시 화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장식기법에 주로 사용된 문양의 종류를 보면, 모든 유형에서 화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복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있어 화려한 꽃문양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3.2.3. 소재의 특성

소재의 특성상 잡지 화보로는 정확한 명칭을 분류하는데 무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의 한복의 경향은 한복의 예복화와 서구화된 생활 패턴, 경제성장에 의한 난방시설과 이동수단의 발달 등에 의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경향과 이윤창출의 의도가

맞물려 노방, 주, 모시효과를 낸 실크 등 얇고 비치는 특성을 가진 사계절용 소재들이 생산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사철깨끼’라 불렀다(이현숙, 2006). 이러한 경향은 1990년도와 2000년도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사철깨끼 소재로 많이 쓰여 온 감사, 생고사, 숙고사, 자미사, 노방 등과 함께 옥사, 생사, 깨끼원단(무늬 없이 깨끼바느질을 할 수 있는 원단으로 업체에서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임) 등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겨울용 소재로는 단과 명주가, 여름용 소재로는 모시와 옥사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한복의 수요층이 결혼을 앞둔 신부이거나 성인여성이 대부분이므로 이 시기에도 많이 소비된 소재는 주로 사계절용으로 시판된 소재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유형의 장식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된 시기이므로 한복에 사용된 소재는 주로 바탕에 무늬가 없는 소재가 사용된 점이다.

3.2.4. 깃모양과 색상의 특성

한복의 구성상 치마보다 저고리에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므로, 저고리에 디자인의 초점이 집중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깃은 상의의 목 부위를 감싸는 구성요소로, 세부형태에 따라 반달깃, 목판깃, 반목판깃, 당코깃, 동그래깃 등으로 불린다. 깃은 얼굴과 가장 가깝게 있으며 깃의 농담에 따라 입는 사람의 얼굴 윤곽선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고리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깃 부분에 시선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입는 사람의 인상이 좌우되기도 한다.

저고리 깃을 종류별·색상별로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저고리 깃의 종류별·색상별 출현율

깃종류	깃색상(N)	N(출현율: %)
동그래깃	저고리색(115), 자주(23), 작색(21), 치마색(15), 흰색(8), 감색(4), 가지색(3), 적자색(3), 초코렛색(3), 먹색(3), 조각(3), 보라(2), 자두색(2), 검보라(1), 꽃분홍(1), 대추색(1), 두릅색(1), 목홍색(1), 백록색(1), 비취색(1), 연미색(1), 청자색(1)	214(48.9)
당코깃	저고리색(112), 자주(25), 작색(21), 치마색(9), 흰색(9), 조각(8), 색동(6), 먹색(4), 진홍(3), 자두색(2), 가지색(2), 진녹색(2), 초코렛색(2), 간장색(1), 감청색(1), 네이비블루(1), 라일락색(1), 벽돌색(1), 벽청색(1), 비취색(1), 연자주(1), 주황(1), 진달래색(1), 진보라(1), 파랑(1), 홍색(1), 회보라(1)	219(50)
목판깃	저고리색(2), 황금색(2), 자주(1)	5(1.1)
소 계		438(100)

Table 7. 저고리 끝동의 유형별 · 색상별 출현율

끝동의 종류 (끝동너비)	형 태	끝동색상(N)	N (출현율: %)
유형 I (2~3 cm)		흰색(2), 작색(2), 홍색(2), 치마색(2), 저고리색(1), 목홍색(1), 연미색(1), 유황색(1), 초코렛색(1)	13(3.0)
유형 II (4~5.5 cm)		흰색(66), 자주(26), 작색(21), 치마색(18), 저고리색(8), 조각(7), 색동(6), 가지색(4), 감색(4), 먹색(4), 초코렛색(4), 남색(3), 적자색(3), 파랑(3), 검보라(2), 라일락색(2), 자두색(2), 진달래색(2), 진홍(2), 간장색(1), 감청색(1), 남청색(1), 네이비블루(1), 담등꽃색(1), 대추색(1), 목홍색(1), 분홍(1), 쑥색(1), 아청색(1), 진녹색(1), 청자색(1), 초록(1), 하늘색(1), 회연두(1), 회청색(1)	203(46.3)
유형 III (7~8 cm)		흰색(29), 색동(5), 저고리색(4), 자주(4), 작색(3), 조각(3), 치마색(2), 비취색(2), 고사리색(1), 담자색(1), 벽청색(1), 초록(1), 회보라(1)	57(13.0)
유형 IV (10 cm 이상)		흰색(26), 색동(9), 저고리색(4), 조각(4), 자주(4), 작색(4), 황금색(2)	53(12.1)
끝동이 없는 경우 (선치기)		끝동이 없는 경우(82), 선치기(25), 색동(3), 스티치(1), 수모(1)	112(25.6)
소 계			438(100)

Table 6을 통해 저고리에 나타난 깃의 종류별 · 색상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438점 중 당코깃이 219점, 동그래깃이 214점으로 각각 50%와 48.9%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고, 목판깃은 5점(1.1%)으로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동그래깃과 당코깃의 색상으로는 저고리의 바탕색과 같은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자주와 작색, 치마색,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목판깃에는 저고리색과 황금색이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저고리의 깃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졌던 동그래깃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당코깃의 비율이 높아진 점이 특이하다. 저고리 깃의 색상을 보면, 모든 종류에서 저고리의 바탕색과 같은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는 모든 유형의 장식기법이 화려하게 사용되어 나타난 시기이므로 저고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깃의 색상을 차별하고 안정되게 저고리색과 같은 색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3.2.5. 끝동너비와 색상의 특성

저고리의 끝동을 유형별 · 색상별로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Table 7을 통해 저고리 끝동의 유형별 · 색상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438점 중 유형II가 203점(4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끝동이 없는 경우가 112점(25.6%)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유형III과 유형IV가 각각 57점(13.0%)과 53점

(12.1%)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며, 유형I이 13점(3.0%)으로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유형II의 색상으로는 흰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자주와 작색, 치마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유형III과 유형IV는 흰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색동과 저고리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유형I은 흰색, 작색, 홍색, 치마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끝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모 끝에 선치기와 색동, 스티치, 동물의 털로 장식한 예도 보인다.

이상에서 저고리의 끝동은 종전에 쓰여졌던 일반적인 끝동의 너비가 계속해서 사용되어 나타났으며, 특이한 점은 유형III과 유형IV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끝동의 너비가 넓어지고 그 위에 화려한 자수나 금박으로 장식한 점이다. 끝동의 색상을 보면, 모든 유형에서 흰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는 모든 유형의 장식기법이 화려하게 사용되어 나타난 시기이므로 저고리의 깃과 함께 색상을 차별하고 안정되게 배색하기 위해 흰색을 사용하거나, 넓어진 흰색의 끝동 위에 자수나 금박으로 장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3.2.6. 고름길이와 색상의 특성

고름은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앞길을 여미기 위해 가슴 근처에서 매는 2개의 끈으로, 길이에 따라 긴고름, 중간고름, 짧은고름으로 분류하였다. 고름은 인체에서 분리된 유일한 장식식으로 옷고름이 의복 전체에 주는 균형미는 한복의미를 돋보이게

Table 8. 저고리 고름의 종류별 · 색상별 출현율

고름의 종류	고름색상(N)	N(출현율: %)
긴고름	자주(74), 저고리색(63), 작색(60), 치마색(46), 홍색(19), 흰색(12), 먹색(10), 초코렛색(9), 가지색(8), 자주색(6), 감색(6), 진녹색(5), 간장색(4), 네이비블루(4), 적자색(4), 남색(3), 목홍색(3), 청자색(3), 옥색(2), 파랑(2), 보라(2), 진보라(1), 검보라(1), 감청색(1), 고동색(1), 꽃분홍(1), 분홍(1), 남청색(1), 담등꽃색(1), 담자색(1), 담청색(1), 대추색(1), 두릅색(1), 라일락색(1), 백록색(1), 벽돌색(1), 벽청색(1), 비취색(1), 연미색(1), 유황색(1), 진달래색(1), 팔색(1), 포도주색(1), 회보라(1), 조각(1)	369(84.2)
중간고름	저고리색(13), 작색(5), 자주(3), 홍색(2), 주홍(1), 하늘색(1), 네이비블루(1), 먹색(1)	27(6.2)
짧은고름	저고리색(6), 치마색(6), 홍색(5), 자주(4), 먹색(2), 작색(1), 감색(1), 다홍(1), 벽돌색(1), 연분홍(1), 연자주(1), 은회색(1), 진달래색(1)	31(7.1)
고름이 없는 경우	매듭단추(10), 브로치(1)	11(2.5)
소 계		438(100)

Fig. 10. 긴고름(한복 No.10, 2002)

Fig. 11. 중간고름(한복 No.5, 2001)

Fig. 12. 짧은고름(한복 No.20, 2003, p.63)

하는 장식적인 역할을 하며, 치마·저고리가 모두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옷고름은 비대칭으로 파격의미를 불러일으킨다(이현숙, 2006).

저고리의 고름을 종류별·색상별로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8을 통해 저고리 고름의 종류별 · 색상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438점 중 긴고름이 369점(84.2%)으로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짧은고름이 31점(7.1%), 중간고름이 27점(6.2%), 고름이 없는 경우가 11점(2.5%)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긴고름(Fig. 10)의 색상으로는 자주와 저고리의 바탕색과 같은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중간고름(Fig. 11)은 저고리색과 작색이, 짧은고름(Fig. 12)은 저고리색과 치마색, 홍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름이 없는 경우에는 매듭단추와 브로치로 고정하여 고름을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저고리의 고름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졌던 긴고름이 계속해서 사용되어 나타났으며, 색상으로는 저고리색과 함께 자주 계열인 자주와 작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종류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사용부위, 문양, 소재, 깃모양과 색상, 끝동의 너비와 색상, 고름의 길이와 색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식기법의 유형은 단독형(54%)과 복합형(46%)으로 분류하였다. 단독형의 경우 금·은박과 자수가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복합형의 경우 두 가지의 장식기법이 조합된 자수와 선치기, 색동과 선치기가 주류를 이룬다. 한편 금은박, 자수, 색동, 조각잇기 등의 기법은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많이 사용되어 나타나고, 선치기와 스티치, 잣물림, 매듭, 핀턱 등의 기법은 단독으로 쓰여 지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복합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문양과 색상이 배합되어 나타나는 화려한 기법들은 단독형으로 쓰였으나, 문양이 없고 비교적 장식이 단순한 기법들은 화려한 장식기법들이 더해짐으로써 한복에 있어 전체적으로 화려함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장식기법의 사용부위를 보면, 금·은박은 깃과 고름, 끝동, 결마기 등에 주로 사용되었고, 자수는 깃과 끝동, 소매와 치마에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으며, 선치기는 깃선, 설편, 수구 끝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특이하게 진동돌레선과 치마폭 사이사이에 사용되어 나타났다. 색동은 주로 소매 전체 또는 소매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끝동, 깃에도 사용되었다. 조각잇기는 끝동과 깃에, 그림그리기와 아플리케, 매듭은 주로 치마에, 스

티치와 잣물림, 핀턱, 수모는 주로 깃선에, 누비는 저고리에 주로 사용되었다. 장식기법이 주로 사용된 부위는 깃과 끝동, 소매, 섶, 고름, 저고리 등과 치마의 밑단이나 폭 사이사이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시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동정, 소매 배래, 화장 부위, 치마말기 등에도 장식한 예를 볼 수 있었다.

장식기법에 나타난 문양을 보면, 자수(57.4%)와 금은박(32.2%)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금·은박은 수복문과 화문이 조합되어, 자수는 화문이 많이 사용되어 나타났다. 이처럼 장식기법에 주로 사용된 문양은 화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복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있어 화려한 꽃문양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소재를 보면, 1980년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사계절용으로 시판된 소재가 주를 이루었으며 바탕에 무늬가 없는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저고리 깃을 보면, 당코깃(50%)과 동그래깃(48.9%)이 주로 사용되었다. 깃의 색상은 저고리의 바탕색과 같은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에는 모든 유형의 장식기법이 화려하게 사용되어 나타난 시기이므로 저고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깃의 색상을 차분하고 안정되게 저고리색과 같은 색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저고리 끝동을 보면, 너비가 4~5.5 cm 정도인 유형II(46.3%)가 주로 사용되었다. 끝동의 색상은 흰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저고리의 깃과 함께 색상을 차분하고 안정되게 배색하기 위해 흰색을 사용하거나, 넓어진 흰색의 끝동 위에 자수나 금박으로 장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저고리 고름을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졌던 긴고름

(84.2%)이 계속해서 사용되어 나타났고, 색상은 저고리색과 함께 자주 계열인 자주와 작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대의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특성을 2001년~2005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고, 월간지 화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색상이나 치수에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며, 이후 후속 연구에서 2006년~2009년도의 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백영자. (2007). *한복 마케팅의 이해*. 서울: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pp. 68.
- 이영애. (2002). *아플리케이션 응용한 한복문양 디자인 연구 - 서양 건축물의 창을 모티브로*.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혜. (2007). *한복 마케팅의 이해*. 서울: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pp. 97-98.
- 이현숙. (2006). *현대 한복의 장식성에 관한 연구 - 1986~1997년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박영희. (2004). 한복에 사용된 장식문양을 통하여 본 전통·현대화 작업에 대한 분석 -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4(1), 13.
- 정혜경. (2006). 남북한 전통의상에 사용된 장식문양에 관한 비교연구 - 1990년대 중반이후 여성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6), 630-632.
- 하덕순. (1993). *한복에 장식된 문양에 관한 연구 - 80년대~현재까지 치마저고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년 8월 20일 접수/2010년 10월 3일 1차 수정/
2010년 10월 7일 2차 수정/2010년 10월 7일 게재확정)